

人蔘의 효능과 응용

崔湖榮(慶熙大 韓醫科大學 本草學教室 助教授)

hychoi@khu.ac.kr Fax.:(02)961-0325

1. 개설

人蔘은 두릅나무과 Araliaceae 에 속한 다년생초본인 인삼 *Panax ginseng* Meyer 의 뿌리를 건조한 것이다. 인삼의 *Panax ginseng* Meyer라는 學名은 1843년 소련의 Meyer가 命名한 것이며, 屬名인 Panax는 그리스 어원으로 모든 것이라는 뜻의 Pan과 藥으로 사용한다는 뜻의 Axos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말이다.

人蔘은 <神農本草經>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人衛, 鬼蓋 등의 異名이 있고, 上品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 뿌리의 형상이 사람과 같아서 얻은 이름이다. 특히 국산의 경우 參이라고 하지 않고, 蔘자를 사용하는 것은 고래로부터 국산이 중국산에 비하여 우수하기 때문에 특별히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한다고 한다.

한의학에서는 性은 微溫하고, 味는 甘微苦한 藥性으로, 脾 肺 心經에 歸經한다. 大補元氣 固脫生津 安神之 효능으로 勞傷虛損 食少 倦怠 反胃吐食 大便滑泄 虛咳喘促 自汗暴脫 驚悸 健忘 眩暈 頭痛 陽痿 頻尿 消渴 婦女崩漏 小兒慢驚 久虛不復 一切氣血津液不足에 상용되는 한약재이다. 臨床에서 주로 脾肺氣虛혹은 氣血兩虛之症에 중요하게 사용된다. 또한 大病, 久病 後에 元氣가 大傷한 때에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元氣虛極欲脫, 脈微欲絕之候에 있어서 人蔘은 필수이다. 그 외에 熱病氣津兩傷 및 消渴이나, 氣血虛弱하여 나타난 心神不安, 驚悸失眠, 健忘 등의 증상에도 역시 常用한다. 古人이 말하길 “虛勞內傷을 치료하는 첫 번째 要藥이다.” (爲治虛勞內傷 第一要藥)이라 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산지인 중부지방인 경기도의 강화 포천과 충청남북도의 금산 옥천 영동 및 경상북도의 풍기 영주 등에서 재배하며, 중국과 일본에서도 일부 재배하고 있다.

人蔘은 주로 한국과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생산되는데, 중국이 전세계 人蔘 생산량 중 약 70%를 차지하고, 국제시장 유통량 중 약 65%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시장에서의 人蔘 가격은 우리나라 人蔘 가격보다 몇 배나 낮게 유통되고 있다. (國家中醫藥管理局, 1995)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人蔘의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이며, 국가에서 오랫동안 관리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에서는 국제시장에서 자국산 人蔘의 품질을 인정받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人蔘은 야생으로 오래된 것을 효능이 아주 좋은 上品으로 여기며, 재배한 것은 그 보다 못한 것으로 생각되어 지고 있다.

그 재배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조선의 영정조 때로부터 보아야 한다는 설이 있고, 그 이전인 삼국시대부터 재배하였다는 설도 있다.

중국에서는 清代中期 이전의 人蔘은 모두 야생이었다. 그 후 자원이 계속 파괴되자 野生人蔘은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宋代 <冊府元龜>에는 渤海時期에 人蔘을 珍品으로 記載하고 있다. 이 시기에 人蔘은 渤海 귀족 자신의 사용하거나 예품으로 바치는 데에 사용되었다. 다만 채취량이 많지 않아 야생자원이 비교적 풍부하였다. 그 후 金 明代를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人蔘을 대단히 중요시하게 되었으나, 野生人蔘에 대한 보호는 없었다. 그러므로 자원이 점점 감소되면서, 清代以後에는 人蔘의 채취를 관리하게 되었다. 淸政府는 의식적으로 野生人蔘 자원의 채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실시하였고, 이것이 중국 한약재 보호 관리의 시작이 되었다. 清代는 野生人蔘 자원관리가 가장 엄격한 시기로 정부는 개인이 人蔘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人蔘의 값이 높으므로 그 이익을 얻기 위하여, 人蔘을 채취하는 일은 금지시켜도 그치지 않았다. 清代末期에 금지가 풀리면서 野生人蔘 자원은 더욱 고갈되었고, 民國後期에 野生人蔘은 이미 드물게 되었다. 新中國이 건립된 후에 야생약재 보초조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생태평형의 파괴로 野生人蔘 자원은 아직 회복되지 않고, 현재 野生人蔘은 보기가 매우 어렵다.(孟慶瑛, 1996)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는 藏腦 山養參 등의 이름으로 野生人蔘의 씨앗을 깊은 산속에 뿌려 재배한 후에 아주 고가로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지역 특산으로 그 재배를 장려하고 있기도 하다. 또 일부에서는 중국에서 채취된 野生人蔘을 국내에서 채취된 山參으로 둔갑시켜 아주 고가로 판매하기도 한다고 한다.

현대의학이 유전자치료로 대변되는 맞춤형의학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지금에도, 人蔘의 효능에 대한 인식은 결국 한의학의 많은 임상 경험을 통하여 인식되고 인정된 범위에서 정리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人蔘의 응용 역사를 통하여 그 효능에 대한 인식의 변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 결과로서 현재 한의학에서의 人蔘의 임상 응용 방법을 최근 서적을 통하여 정리하였다.

2. 한의학에서 人蔘의 응용 역사

기원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현재는 두릅나무과 Araliaceae 다년생 초본식물인 인삼의 뿌리를 기원으로 쓴다. 人蔘의 代用品이나 僞品으로 유통되는 것으로는 만삼 *Codonopsis pilosula* (Fr.) Nannf. 의 뿌리를 건조한 黨參과 개별꽃 *Pseudostellaria heterophylla*의 뿌리를 건조한 太子參, 도라지 *Platycodon grandiflorum*의 뿌리를 건조한 桔梗 등이 있다.

1) 漢代

漢代에서부터 人蔘이 임상에서 상용되었으며, 의사들은 이미 人蔘에 대해 비교적 깊은 이해가 있었다. <神農本草經>에서는 “味甘微寒, 主補五臟, 安精神, 安魂魄, 止驚悸, 除邪氣, 明目, 開心, 益智. 久服輕身延年”이라 하였다.

<傷寒論>과 <金匱要略>에서 人蔘이 사용된 처방은 36개에 달한다.

<傷寒論>에서는, 우선 生津止渴하는 데에 쓰였는데, 白虎加人蔘湯 같은 것으로 白虎湯證에 津液이 대상하여 口渴이 비교적 심하고, 氣陰兩傷, 口舌乾燥者에 적용하였다. 口渴은 熱傷氣津한 것으로 津傷하여 渴하고 氣傷하여 津液이 不布하므로 물을 마셔도 효과가 없는 것이다. 人蔘은 生津止渴하고 益氣하여 氣旺津生하므로 津液이 정상적으로 輸布되어 口渴이 없어진다. 또한 四逆加人蔘湯은 四逆의 惡寒脈微而複利, 利止하는 것을 치료한다. 泄瀉가 그치는 것은 陰液이 內竭되었기 때문이므로 人蔘을 加하여 救陰하는 뜻이다.

人蔘의 다른 작용은 益氣하여 補虛하는 것이다. 예로 <金匱要略>의 人蔘湯은 人蔘 · 白朮 각 9g, 乾薑 · 炙甘草 각 6g을 水煎하여 2번으로 나누어 복용하는 것으로, 中氣不足으로 인한 胸痺를 치료하는데, 胸悶, 胸痛, 倦怠乏力, 納呆食少 등과 같은 증상이다. 이는 氣虛血瘀에 속하는 것으로 益氣法으로 胸痺를 치료하는 先例이다. 다른 처방으로 理中丸이 있다. <傷寒論>중에서 溫中祛寒, 健脾益氣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脾胃虛寒으로 吐瀉腹痛, 喜溫喜按, 口不渴, 或 泛吐清涎, 四肢不溫, 舌淡苔白, 脈沈遲 或 細弱에 쓰이며, 현재에도 脾胃虛寒을 치료하는 대표처방이 된다. 그 외에 炙甘草湯, 乾薑黃芩黃連人蔘湯, 厚朴生薑半夏甘草人蔘湯, 半夏瀉心湯, 吳茱萸湯 등의 처방 중에 人蔘은 모두 益氣補虛를 위한 것이고 이로써 扶正祛邪하는 의미가 있다.

2) 魏晉南北朝時代

魏晉南北朝時代에 이르러 陶弘景의 <名醫別錄>에서는 人蔘을 “療腸胃中冷, 心腹鼓痛, 胸脇逆滿, 霍亂吐逆, 調中, 止消渴, 通血脈, 破堅積, 令人不忘”한다 하였다.

임상 응용된 것으로 <肘後備急方>의 葛氏治卒乾嘔不息方은 人蔘 · 甘草 각 9g, 生薑 18g을 水煎하여 2번으로 나누어 복용하는데, 여기서 乾嘔不息은 곧 脾胃虛寒하기 때문이다. 처방에서 人蔘은 補虛하고 甘草는 和中하고 生薑은 溫中止嘔하며, 함께 사용하면 補虛溫中止嘔의 효능이 있다. 이는 <傷寒論>의 吳茱萸湯을 변형시킨 것이다.

이외에 <肘後備急方>중에 治卒上氣喘息欲絕方은 人蔘 단미만을 가루내어 약 1g 정도를 하루에 5-6번 복용하는데, 喘息欲絶은 대개 大汗淋漓가 있으니, 이는 元氣가 脫하려는 危急한 證候이다. 처방에서 人蔘만을 사용하여 大補元氣하며 固脫한다. 이는 “獨蔘散”이라고도 하는데 後世의 獨蔘湯의 원형이고, 人蔘을 救急에 사용한 호시가 되었다.

그 외에 최초의 外科 專門書인 <劉涓子鬼遺方>에서 人蔘을 外科瘡瘍에 사용하여

癰疽氣血不足을 치료하였는데, 예를 들면 黃芪湯은 黃芪 15g, 人蔘 芍藥 當歸 乾地黃 茯苓 白朮 각 9g, 遠志 炙甘草 生薑 각 6g, 大棗 5개를 水煎하여 2번으로 나누어 복용하여, 癰疽內虛를 치료한다. 처방 중의 黃芪는 “瘡家聖藥”으로 稱하여지고, 人蔘과 相須로 함께 사용하면, 補氣托瘡生肌의 효능이 있으며, 當歸, 芍藥, 地黃 등을 配伍하여 養陰補血하므로, 癰疽氣血不足內虛에게 적합하다. 이밖에도 治癰內補하는 黃芪湯, 發背와 發乳를 치료하는 兼味竹葉湯 등이 있으며, 처방 중에 人蔘은 역시 益氣生血 補虛托瘡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실제로 外科에서 瘡瘍內托法의 先例가 되었다.

3) 唐代

唐代에 이르러서는 人蔘에 대한 부단한 연구를 통하여 臨床應用이 확대되었다.

<藥性論>에서 人蔘을 “主五臟不足, 五勞七傷, 虛損瘦弱, 吐逆不下食, 止霍亂煩悶嘔噦, 補五臟六腑, 保中守神”, “消胸中痰, 主肺胃吐膿及癰疾, 冷氣上逆, 傷寒不下食, 凡虛而多夢紛紜者加之.”라 하였다. 李珣이 역시 人蔘은 “止煩躁” 한다 하였다.

이 시기에는 人蔘을 補心氣, 寧神益智하는데 사용한 처방서가 많아졌다. 예로 孫思邈의 <備急千金要方>의 定志丸은 人蔘과 茯苓 菖蒲 遠志 동량을 가루내고, 煉蜜로 梧桐子크기로 丸을 만들어, 한 번에 7丸을 하루에 3번 복용하는데, “心氣不足, 五臟不足, 甚者憂愁悲傷, 匆匆喜忘”을 치료한다. 처방 중의 人蔘은 補心氣, 安心神하고, 茯苓은 寧心安神, 菖蒲 遠志는 化痰開竅 寧神한다. 本方은 氣虛痰擾, 心悸失眠, 健忘 등에 사용한다. 이 책의 人蔘丸, 大定心湯 등 心虛驚悸, 恍惚不安을 치료하는 처방에서 人蔘은 모두 補心氣, 安心身을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千金翼方>에서는 人蔘 茯苓 각 9g, 茯神 12g, 芍藥 當歸 桂心 甘草 각 6g, 生薑 24g, 大棗 5개를 水煎服하여 “產後忽苦心中沖悸, 或意志不定, 恍恍惚忽, 言語錯謬, 屬心虛所致”者를 치료한다. 처방 중에 人蔘은 產後之虛를 補하며, 또 寧神益智하여 一藥二用이 된다.

4) 宋代

宋代에는 출판문화의 번성과 함께 醫藥學에도 비교적 큰 발전이 있었으며, 人蔘의 응용도 날로 확대되었다. <日華子諸家本草>에서는 人蔘을 “調中治氣, 消息開胃”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 시기의 人蔘은 脾胃虛弱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방제가 아주 많이 출현하였다.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는 많은 유효한 방제를 수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四君子湯은 人蔘 炙甘草 茯苓 白朮 各等分을 가루내어 한 번에 15g을 水煎服하는데, 이 처방은 益氣補中, 健脾養胃하는 효능이 있어, 脾胃虛弱으로 運化失司하여 面色萎白, 肢體倦怠, 不思飲食, 或大便溏瀉, 脈弱無力 等症을 치료한다. 처방 중에 人蔘 白朮은 補脾益氣하고, 茯苓은 佐藥으로 滲濕健脾하고, 炙甘草는 甘緩和中하며, 合用하면 益

氣補中의 효능이 있다. 이 처방은 <金匱要略> 人蔘湯의 변방으로 仲景의 補中之意를 잃지 않고, 후세의 補益脾胃의 기본 처방이 되었다. 補脾益氣의 대표적인 처방으로, 五味異功散 六君子湯 七味白朮散 등은 모두 이 처방의 가미이다.

또 蔘苓白朮散은 人蔘 白朮 白茯苓 炙甘草 山藥 각 1,000g과 白扁豆 薑汁浸炒 750g, 蓮子肉 薏苡仁 縮砂仁 炒桔梗 각 500g을 가루내어 한 번에 6g을 棗湯으로 調下하는데, 健脾益氣, 和胃滲濕하는 효능이 있어 脾胃氣虛하면서 挾濕者에게 사용한다. 처방 중 人蔘은 補益氣하며 祛濕을 돕는다.

그 외에 人蔘敗毒散은 柴胡 人蔘 桔梗 川芎 茯苓 枳殼(麥炒) 前胡 羌活 獨活 각 등분을 가루내어, 한 번에 15g을 生薑 薄荷를 조금 넣어서 끓인 물로 복용하는데, 益氣解表, 散風祛濕하는 효능이 있어, 傷寒時氣, 頭項強痛, 壯熱惡寒, 身體煩痛 및 寒壅咳嗽, 鼻塞聲重, 風痰頭痛, 嘔噦寒熱 등을 치료한다. 처방 중에 人蔘은 益氣扶正하고 祛邪하며, 이는 益氣解表의 代表方이다. 人蔘의 益氣하는 효능이 능히 체력을 증강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蘇頌의 <圖經本草>에서는 “使異人同走, 一人舍人蔘, 一空口, 各走奔三, 五里許, 其不舍人蔘者, 必大喘, 舍者其息子如.”라고 기재하였다. 일찌기 宋代에 이러한 실험이 있었으니, 매우 대단한 일이다.

5) 金元代

金元時期에 이르러, 人蔘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이 더욱 깊어졌다. 張元素의 <珍珠囊>에서는 人蔘을 “養血, 補胃氣, 瀉心火”한다고 하였고, <醫學啓源>에서는 “治脾胃陽氣不足及肺氣促, 短氣少氣, 補中緩中, 瀉肺·脾·爲中火邪, 止渴生津液.”이라 하였다. <主治秘要>에서는 “補元氣, 止瀉, 生津液.”이라 하였고, 李杲는 “人蔘能補肺中之氣, 肺氣旺則四臟之氣皆旺, 肺主諸氣故也. 仲景以人蔘爲補血者, 皆血不自生, 須得生陽氣之藥乃生, 陽生則陰長, 血乃旺矣. 若陰虛單補血, 血無由而生, 無陽故也.” “人蔘得黃芪, 人蔘, 乃甘溫除大熱, 瀉陰火, 補元氣, 又爲瘡家聖藥.”이라 하였다. <湯液本草>에서는 “人蔘味既甘溫, 調中益氣, 則補肺之陽, 泄肺之陰也, 藥便言補肺, 而不論陰陽寒熱, 何氣不足則誤矣.”라 하였다.

임상응용에서 광범위하게 脾肺氣虛症에 쓰인 것 외에 葛可久가 만든 獨蔘湯에는 人蔘 60g, 棗湯煎服 하여 “止血後, 以此藥補之”. 하였다. 大失血後 元氣大虛에 人蔘一味를 重用하여 大補元氣하여 “血脫者, 當益其氣”한 것이다. 補氣로서 生血하니, 이는 후세에 獨蔘湯으로 補氣固脫, 救急扶危하는 좋은 방도를 알려준 것이다. 후세사람들이 蔘附湯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다.

人蔘을 만약 附子와 함께 사용하면 益氣回陽, 固脫의 효능이 더욱 강해진다. <婦人良方>의 蔘附湯은 人蔘 30g, 炮附子 15g에 生薑 2片, 大棗 3개를 水煎하여 천천히 복용하는데, 回陽 益氣 固脫의 효능이 뛰어나다. 元氣大虧, 陽氣暴脫하여 手足厥冷, 汗出, 呼吸微弱, 脈微 등의 증상에 사용한다. 처방 중의 人蔘은 大補元氣하여 이로써 固後天之本하며 重在固氣하고, 附子は 溫壯元陽하여 이로써 固先天之本하며 重在回陽하므로, 두 약을 함께 사용하면 相補相成하여 약효가 신속하여 위급한 병증

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처방이 된다.

그 외에 補氣하는 처방으로는 이 책에 六君子湯(人蔘 白朮 茯苓 各 9g, 陳皮 半夏 炙甘草 各 6g, 加生薑 3片 大棗 5枚, 水煎服)이 있는데, 脾肺氣虛에 兼痰濕者에게 사용한다. 즉 咳嗽氣短, 痰白清稀, 倦怠乏力, 或有嘔吐, 食慾不振 등의 증상에 사용하는데, 처방 중에 人蔘은 大補脾肺之氣하고, 白朮 茯苓과 배오하여 健脾祛濕하여 “生痰之源”을 없애며, 陳皮 半夏는 燥濕化痰하고, 薑棗는 和脾胃하고, 甘草는 調和諸藥한다. 이러한 약들을 함께 사용하면 健脾補肺, 燥濕化痰의 효능이 있게 된다.

다른 예로 歸脾湯(炙黃芪 15g, 人蔘 炒白朮 茯苓 龍眼肉 當歸 各 9g, 酸棗仁 12g, 遠志 木香 炙甘草 各 6g, 生薑 2片, 大棗 4개를 水煎하여 2번으로 나누어 복용함.)의 효능은 健脾養心, 益氣補血한다. 思慮過度 및 勞傷心脾로 氣血不足에 이르러 面色萎黃, 體倦食少, 心悸怔忡, 健忘失眠, 多夢易驚, 或有發熱, 舌淡苔白, 脈細弱하거나 婦女的 月經이 너무 빠르면서 양이 많고 色淡하거나 淋漓不止하여 崩漏가 된 자에게 사용한다. 처방 중에 人蔘은 益氣生血하고 寧神益智의 효능이 있어 主藥이 된다. 李東垣의 <內外傷辨感論>에서는 生脈散이 있는데 人蔘 12g, 麥冬 五味子 9g을 배오하여 水煎服한다. 益氣斂汗, 養陰生津의 효능이 있다. 熱傷氣陰, 肢體倦怠, 氣短口渴, 汗出不止, 脈虛弱, 或久咳傷肺, 氣陰兩傷, 乾咳短氣, 自汗者를 치료한다. 처방 중에 人蔘은 益氣生津하고, 麥門冬을 配合하면 養陰清熱하여 生津하고, 五味子は 益氣生津斂汗한다. 세 약을 함께 사용하면 補하고 清하고 斂하니, 益氣養陰 生津止渴 固表止汗의 효능이 있다.

그 외에 <濟生方>의 人蔘胡桃湯은 人蔘 6g, 胡桃(取肉) 5개, 生薑 5片을 水煎하여 자기 전에 복용한다. 補肺腎 止喘嗽의 효능이 있어, 肺腎兩虛하고 胸滿喘急하여 누워 잘 수 없을 때 사용한다.

<衛生寶鑑>에 人蔘蛤蚧散은 蛤蚧 한 쌍, 杏仁 炙甘草 各 150g, 知母 桑白皮 人蔘 茯苓 貝母 各 60g을 가루내어, 한 번에 6g씩 茶水에 타서 매일 3번 복용한다. 補肺清熱 化痰定喘의 효능이 있어, 久病으로 쇠약하고 겸하여 肺熱氣喘하는 병증에 사용한다.

<仁齋直指方>의 玉壺丸은 人蔘 花粉 동량을 가루내어 梧桐子 크기의 丸으로 만들어, 한 번에 30丸씩 麥門冬煎湯으로 복용하는데, 益氣生津, 清熱止渴의 효능이 있어, 消渴로 引飲을 그칠 수 없는 데 쓴다.

6) 明代

明代에 이르러 補益藥의 이용이 광범위하여 지고, 여러 본초학자는 人蔘에 대하여 종합적인 설명을 하였다. 李時珍의 <本草綱目>에서는 人蔘은 “治男婦一切虛症, 發熱自汗, 眩暈頭痛, 反胃吐食, 痲瘡, 滑瀉久痢, 小便頻數, 淋瀝, 勞倦內傷, 中風, 中暑, 瘧痺, 吐血, 嗽血, 下血, 血淋, 血崩, 胎前產後祭屏”이라 하였다. 繆希雍의 <本草經疏>에는 “人蔘能回陽氣于垂絕, 却虛邪于俄頃. 其主治也, 則補五臟. 蓋臟雖有五, 以言乎生氣之流通則一也, 益真氣, 則五臟皆補矣.”, “真氣內虛, 故腸胃中冷, 氣旺陽回則

不冷矣. …… 謂中者, 脾治中焦, 脾得補則中自調矣. 消渴者, 津液不足之候也, 氣回則津液生, 津液生則渴自止矣. 通血脈者, 血不自行, 氣壯則行, 故通血脈.”이라 하였다. 繆氏는 人蔘에 대하여 다방면의 효능을 歸結하여 益眞氣元氣라 하였는데 매우 타당하다. 倪朱謨의 <本草匯言>에서는 “人蔘, 補氣生血, 助精養神之藥也. 固眞氣衰弱, 短促氣虛, 以此補之, 如營衛空虛, 用之可治也. 驚悸怔忡, 健忘恍惚, 二次寧之, 元神不足, 虛羸乏力, 二次培之, 如中氣衰弱, 用之可升也. 又若汗下過多, 精液失守, 用之可以生津而止渴, 脾胃衰弱, 飲食感常, 或吐或嘔, 用之可以和中而健脾, 小兒痘瘡, 灰白倒陷, 用之可以起痘而行漿. 婦人産理失順, 用力過度, 用之可以益氣而達産, 若久病元虛, 六脈空大者, 吐血過多, 面色萎白者, 瘡痢日久, 精神萎鈍者, 中熱傷暑, 汗竭神疲者, 血崩潰亂, 身寒脈微者, 內傷傷寒, 邪實心虛者, 風虛眼黑, 旋暈卒徒者, 皆可用也.”이라 하였다. 張景岳의 <本草正>에는 “人蔘, 氣虛血虛俱能補, 陽氣虛竭者, 此能回之于無何有之鄉, 陰血崩潰者, 此能障之于已決裂之後. 惟其氣壯而不辛, 所以能固氣, 惟其味甘而純正, 所以能補血”. “而血分之所以不可缺者, 而未有氣不至而血能自至者也. 故扁鵲曰, 損其肺者益其氣, 須用人蔘以益之. 肺氣既旺, 余臟之氣皆旺矣. 所以人蔘之性多主于氣, 而凡臟腑之有氣者, 皆能補之.”

이 時期에 人蔘은 임상 각과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었으며, 人蔘을 사용한 새로운 방제들이 많이 나타났다. <證治準繩·女科>의 濫中散은 人蔘 白朮 當歸 草豆蔻 乾薑 各 30g, 製厚朴 45g을 粗末하여, 한 번에 15g을 水煎服하는데, 産後吐瀉不止를 치료한다. 이 처방은 仲景의 理中丸의 변방이다.

明代의 醫家 張介賓은 濫補를 善用하였는데, 人蔘의 응용에 있어 새로운 수준에 이르러 人蔘을 위주로 유명한 처방들을 많이 만들어 냈다. 獨蔘湯의 응용에 있어서도 새롭고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景岳全書·古方八陣>의 獨蔘湯은 人蔘 60g을 水煎하여 頓服하는데 이미 “諸氣虛, 氣脫, ……凡諸虛症垂危者”를 치료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葛氏의 <十藥神書>의 獨蔘湯이 단지 失血後에 사용한 것에 비교하여, “以此藥補之”라 하여 固脫과 挽救垂危하는데 사용하였으니 이는 크게 진전된 것이다. 景岳은 또한 人蔘과 仲景의 四逆湯을 배합하여 四味回陽飲을 만들었는데, 人蔘을重用하여 30-60g을 사용하고 制附子 炮薑 各 6-9g, 炙甘草 3-6g을 配伍하여 水煎服하는 것으로, 元陽虛脫, 惡寒肢冷, 氣息微弱, 冷汗如油 등을 치료한다. 또 舉元煎은 人蔘 6g, 炙黃芪 15g, 炒白朮 9g, 炒升麻 炙甘草 各 6g을 水煎服하는데, 升陽舉陷하는 효능으로 氣虛下陷, 血崩血脫, 亡陽垂危症을 치료한다. 또 胎元飲은 人蔘 6g, 當歸 杜仲 芍藥 各 9g, 熟地黃 12g, 白朮 6, 炙甘草 陳皮 各 3g(無滯者不用)을 水煎하여 食遠服하거나, 혹 격일로 또는 2-3일에 한번씩 복용한다. 補氣養血 固胎의 효능이 있어 婦人氣虛胎元不固 등을 치료한다. 이러한 처방들에서의 人蔘은 그 補氣固脫하는 효능 외에 元氣大虛와 各種 氣虛의 증상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였다.

7) 清代

人蔘의 응용은 明代와 비교하면, 크게 뒤진다. 그 원인은 첫째, 黨蔘의 출현 후에 일반적인 氣虛의 輕症에는 黨蔘을 代用하였고, 둘째, 人蔘으로 誤補하면 殺人하거나, 誤用하면 病情이 더욱 심하여 지므로 가벼히 쓰지 않게 되었다. 張璐의 <本草逢原>에서는 “從仲景至今, 明賢方西, 無不用人蔘, 下位今日醫家屏絕不用. 殊不知誤用人蔘殺人者, 皆是與黃芪·白朮·乾薑·當歸·肉桂·附子同行溫補之誤所致, 不與羌·獨·柴·前·芎·半·枳·桔等同行汗和之法所致也. 又痘疹不宜輕用人蔘者, 青乾黑陷, 血熱毒盛也. 若氣虛頂陷, 色白, 皮薄, 泄瀉, 漿清, 必用也.”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 도 새로운 방제들이 많이 나왔다. 陳士鐸의 <辨證錄>의 去來湯은 人蔘 茯苓 蒼朮 各 9g, 白朮 15g, 川烏 甘草 各 6g, 半夏 3g을 水煎服하는 것으로, 氣虛하고 微感寒濕之邪하여 邪沖心包, 心痛忽作忽止, 一日十數遍, 飲食無碍, 晝夜不安 등을 치료한다. 이는 仲景의 <金匱要略>의 人蔘湯으로 胸痺를 치료하는 것을 본받아, 人蔘湯을 가감한 變方이다.

또한 程鍾齡의 <醫學心悟>의 安神定志丸은 人蔘 茯苓 茯神 遠志 各 30g, 石菖蒲 龍齒 各 15g을 가루내고, 煉蜜로 梧子大의 丸을 만들고, 朱砂가루로 爲衣하여 한 번에 9g을 복용하는데, 驚恐不安, 睡臥不寧, 夢中驚跳恍惚 등을 치료한다.

<傳青主女科>의 固氣湯은 人蔘 30g, 炒白朮 熟地黃 各 15g, 酒當歸 杜仲炭 各 9g, 茯苓 山茱萸 各 6g, 甘草 遠志 各 3g, 炒五味子 10粒을 水煎服하는데, 少婦懷孕三月을 治療하며, 行房不慎으로 血崩胎墮에 이른 것을 치료하고, 아울러 氣虛崩漏를 치료한다. 方中에 人蔘은 益元氣, 固胎止崩한다. 또 이 책에 補氣升陽湯은 人蔘 黃芪 當歸(酒洗) 各 30g, 炒白朮 15g, 川芎(酒洗) 升麻 各 6g, 水煎服하는데 產婦脫肛을 치료한다.

<醫學衷中參西錄>의 蔘麥湯은 人蔘 白芍 炒牛蒡子 各 9g, 麥門冬 12g, 山藥 18g, 清半夏 炒蘇子 各 6g, 甘草 5g을 水煎服하는데 陰分虧損이 오래되고 肺虛有痰, 咳嗽勞喘, 或兼勞瘵者를 치료한다.

이와 같이 人蔘의 응용은 시대가 바뀌에 따라 조금씩 그 효능이 추가되었으며, 宋代 이전에는 주로 生津止渴이나 益氣補虛하는데 사용되었고, 金元 이후로는 大補元氣, 固脫하는데 쓰이기 시작하였다. 한국 한의학도 역시 이러한 흐름 안에서 人蔘의 효능을 인식하였다고 하여도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의학과는 확연히 틀린 것으로 한국 한의학에서는 체질 개념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그 이론적인 근간이 되고 있는 사상의학에서는 체질에 따라 약재를 분류하고 있다. 특히 人蔘은 溫熱하므로 少陽人에게는 적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중의학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것이다. 사상의학을 창시한 李濟馬가 이러한 인식 즉 熱이 많은 少陽人에게 人蔘이 적당하지 않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때, 중국의 청나라에서도 역시 人蔘의 吐血 등의 부작용으로 즉 黨蔘의 응용이 매우 많아진 것은 매우 유의할 바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黨蔘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人蔘의 효능을 폄하할 수는 없다. 黨蔘의 가격이 저

럼하고 人蔘이 상대적으로 귀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임을 간과할 수 없다.

3. 人蔘의 응용

1. 脫證

人蔘의 味는 달고 性은 微溫하여 元氣를 크게 補하며 虛脫을 치료한다. <神農本草經>에서 “能回陽氣于垂絕，却虛邪于俄頃”라고 하여 人蔘이 虛勞內傷에 으뜸 要藥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本草正>에서는 “陽氣虛竭者，此能回之于無何有之鄉；陰血崩潰者，此能障之于已決裂之后”라 하였다. 무릇 大汗，大吐瀉，大失血 등 元기가 매우 허탈하여 생기는 일체의 證에 人蔘을 君藥으로 하여 益氣固脫시킬 수 있다.

- 1) 氣虛欲脫證: 單味로 쓰면 효과가 있는데, 人蔘을 煎服하여 돌연히 발생한 氣脫을 치료한다.(<十藥神書> 獨蔘湯)
- 2) 氣虛亡陽證: 氣虛欲脫에는 汗出，肢冷，脈浮而空 등의 亡陽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人蔘은 益氣固脫하므로 回陽救逆하는 附子와 배합하여 쓴다.(<校注婦人良方> 參附湯) 만약 亡陽虛脫로 인해 위험해지면 制附子，炙甘草，炮姜 등을 배오하여 益氣回陽시킨다. 즉 <景岳全書> 四味回陽飲는 元氣大虧와 陽氣暴脫을 치료한다.
- 3) 氣虛亡陰證: 熱로 인해 元氣가 傷하고 氣陰이 虛脫되면 神昏，汗出身熱，面紅脣乾，脈虛數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人蔘을 주약으로 하고 麥門冬，五味子を 배오하여 益氣生津시키고 養陰固脫시킨다.(<內外傷辨惑論> 生脈散)
- 4) 血虛氣脫證: 補血養陰하는 熟地黃을 배오하여 益氣養陰固脫시킨다.(<景岳全書> 兩儀膏) 氣血이 虧虛되고 陽精이 허탈된 자는 附子，五味子，熟地黃 등을 가하여 益氣補血，回陽固脫시킨다. <類證治裁>의 救脫湯이 그것이다. 만약 產後에 氣血이 虛하고 陽氣가 끊어지려 하는 자는 當歸，熟地黃，枸杞子 등을 가하여 氣血을 補하고 肝腎을 도와 虛脫을 구한다. <傳青主女科>의 救脫活母湯이 그것이다.

2. 脾虛證

人蔘은 甘溫하여 脾에 入하며 능히 “調中益氣(<湯液本草>)", “和中健脾(<本草匯言>)", 하며 補脾의 要藥이 된다. 무릇 飲食勞倦，濕邪困脾，思慮過度는 脾虛의 증상을 유발시키며 人蔘을 加味하여 치료한다.

- 1) 脾氣虛證: 脾主運化하며，胃主受納하므로 脾氣가 虛衰하면 運化기능이 失調되어 食少，腹脹，便溏，肢倦，懶言 등의 증상이 생긴다. 人蔘은 脾胃의 氣를 잘 補하여

이들 증상을 잘 치료한다. 보통 白朮과 배오하여 益氣健脾시킨다. <景岳全書>의 參朮膏가 그것인데 人蔘과 白朮을 반씩 물에 가하여 전탕하여 복용한다. 혹은 <太平惠民和劑局方>의 四君子湯은 茯苓, 甘草를 더 가한 것인데 이 처방은 健脾益氣의 기본 처방이 된다. 임상에서는 脾虛兼症에 이 처방에 다른 약물을 배오하여 치료한다. 脾虛로 인해 嘔惡가 심한 자는 <金匱要略>의 大半夏湯이나, <傷寒論>의 吳茱萸湯에서처럼 半夏나 吳茱萸를 가해 健脾和胃止嘔시킨다. 소아의 脾虛泄瀉에는 <小兒藥證直訣>의 七味白朮散에서처럼 白朮, 藿香, 葛根 등을 배오하여 健脾止瀉시킨다. 소아가 脾虛하여 感冒에 쉽게 걸리면 <奇效良方>의 六神散에서처럼 黃芪, 白扁豆 등을 가하여 健脾益氣, 固表시킨다. 소아가 脾虛하여 밤에 잠을 잘 못이루고 불안해 하면 <直指小兒方論>의 醒脾散에서처럼 白朮, 天麻 등을 가하여 健脾平肝시킨다. 脾虛食積者는 <繆仲淳方>의 資生健脾丸이나 <醫方集解>의 健脾丸에서처럼 麥芽, 山楂 등을 가하여 健脾消食시킨다. 脾虛挾濕者는 <太平惠民和劑局方>의 參苓白朮散에서처럼 白朮, 茯苓, 白扁豆, 砂仁 등을 가하여 益氣健脾除濕시킨다. 脾虛痰阻者는 <千金要方>의 半夏茯苓湯에서처럼 半夏, 茯苓 등을 배오하여 益氣和胃除痰시킨다. 脾虛氣滯者는 <小兒藥證直訣>의 異功散이나 <婦人良方>의 六君子湯에서처럼 陳皮 등을 배오하여 健脾理氣시킨다.

- 2) 中氣下陷證: 脾는 升清을 主하는데 脾氣가 虧虛하면 中氣가 下陷되고 오래되면 脫肛, 臟器下垂 등의 증상이 발현된다. <脾胃論>의 補中益氣湯이나 <景岳全書>의 舉元煎에서처럼 인삼에 黃芪, 白朮, 升麻 등과 배오하여 益氣升陽舉陷시킨다. 脾虛氣陷하여 시력이 감퇴된 자는 <審視瑤函>의 調中益氣湯처럼 黃芪, 升麻, 白朮 등을 배오하여 益氣升陽, 燥濕明目시킨다. 만약 中氣가 부족하여 清陽이 不升하면 耳鳴, 耳聾의 증상이 생기는데 <脾胃論>의 調中益氣湯에서처럼 黃芪, 炙甘草, 升麻, 柴胡 등을 배오하여 調中益氣, 升舉清陽시킨다. 만약 氣虛下陷하여 清竅가 失養되어 눈에 翳障이 생기면 <東垣十書>의 益氣聰明湯처럼 黃芪, 升麻, 葛根, 蔓荊子, 白芍藥 등을 배오하여 益氣升陽, 聰耳明目시킨다.
- 3) 脾不統血證: 脾는 統血을 主하는데 脾氣가 虛衰하면 혈액을 統攝하지 못하여 혈액이 脈外로 새어나가서 便血, 尿血, 衄血 등의 증상이 발현된다. <校注婦人良方大典>의 歸脾湯처럼 인삼에 黃芪, 白朮, 當歸 등을 배오하여 益氣攝血시킨다. 婦女의 暴崩下血이나 淋漓不止에는 <傳青主女科>의 固本止崩湯처럼 白朮, 黃芪, 熟地黃 등을 배오하여 益氣止血시킨다.
- 4) 脾陽虛證: 脾胃의 陽氣가 虛衰하면 陰寒이 内生하는데 腹痛, 肢冷, 浮腫 등의 증상이 생긴다. <傷寒論>의 理中丸은 白朮, 乾薑, 炙甘草를 배오하여 健脾溫中祛寒한다. 만약 中焦가 虛寒하면 脘腹劇痛, 上冲皮起 등의 증상이 생긴다. <金匱要略>의 大建中湯은 蜀椒, 乾薑, 飴糖 등을 배오하여 健脾溫中, 散寒止痛한다. 만약 임신부의 胃中이 虛寒하면 嘔惡가 그치지 않는다. <金匱要略>의 乾薑人蔘半夏湯은 乾薑, 半夏 등을 배오하여 健脾溫中止嘔한다. 만약 婦女의 血海가 虛寒하면 <婦人良方大典>의 溫經湯에서처럼 當歸, 桂心 등을 배오하여 溫經散寒시킨다. 만

약 中焦가 虛寒하면 滑脫失禁하므로 <太平惠民和劑局方>의 養臟湯에서처럼 肉豆蔻, 罌粟殼 등을 배오하여 溫中固澁시킨다.

- 5) 脾陰虛證: 脾陰이 虛衰하여 滋養運化를 失調하면 食後腹脹, 便難或不調, 口乾, 手足煩熱 등의 증상이 생긴다. 人蔘은 “性品中和, 不寒不燥”(〈本草求真〉)하므로 益氣, 生津시키는 효능이 있어서 脾陰虛證에 <不居集>의 理脾陰正方에서처럼 山藥, 蓮子 등을 배오하여 健脾養陰시킨다.

3. 肺虛證

人蔘은 “專入肺”(〈本草求真〉), “能補肺中之氣”(〈本草綱目〉), “定喘咳”(〈本草蒙筌〉), “消胸中痰”(〈藥性論〉)의 효능을 갖는 補肺의 要藥이다. 대개 久咳傷肺 燥熱傷陰으로 肺虛나 肺腎兩虛가 된 證에 이 약을 배합하여 응용한다.

- 1) 肺氣虛證: 肺는 一身의 氣를 주관하며, 呼吸을 담당한다. 肺氣가 旺하면 다른 장기가 모두 旺하게 된다. 肺氣虛損하면 咳喘短氣하여 눕지 못하고, 痰清聲低 등이 되는데, 人蔘은 大補元氣 益肺氣하므로 五味子 蘇子 桑白皮 등 약을 배합하여, 補肺止咳平喘한다.(〈千金要方> 補肺湯) 만약 肺虛氣弱하여 肺不斂氣하여 久咳가 그치지 않고 咳甚하면 氣喘自汗하면 五味子 등을 배합하여 斂肺止咳 한다.(〈醫學正傳> 九仙散) 만약 肺氣虛弱으로 鼻竅에 邪氣가 머물러 鼻痒 재채기 등 증이 있으면 荊芥 細辛 訶子 桔梗 등약을 배합하여 溫補肺氣 疎風散寒한다.(〈瘍醫大全> 溫肺止流丹)
- 2) 氣陰兩虛證: 肺氣가 耗散하고 肺陰이 虧損하여 嗆咳少痰 喘促自汗 口乾舌燥 등 證이 나타난다. 人蔘은 益氣하고 生津하므로 五味子 麥門冬 등을 배합하여 益氣生津 斂肺止咳한다.(〈類證活人書> 五味子湯). 溫燥傷肺로 氣陰兩虛하여 乾咳無痰 氣逆而喘하는 사람은 麥門冬 桑葉 등을 배합하여 清燥潤肺한다.(〈醫門法律> 清燥救肺湯)
- 3) 肺腎兩虛證: 肺司呼吸하고 腎主納氣하므로 肺腎氣虛하면 胸悶喘急하며 바로 눕지 못한다. 人蔘에 胡桃 生薑 大棗를 배합하여 補肺腎 定喘逆한다.(〈濟生方> 人蔘胡桃湯) 만약 久咳傷肺하고 腎不納氣하며 痰熱內蘊하여 喘咳不已나 咳吐膿血 胸中煩熱 등이 나타나면 蛤蚧 桑白皮 등을 배합하여 益氣補腎 清肺化痰한다.(〈衛生寶鑑> 人蔘蛤蚧散) 만약 肺腎陰虛로 咯血咳嗽하면 二地 二冬을 배합하여 益氣滋陰하여 肺腎同治한다.(〈景岳全書> 人蔘固本丸)

4. 不寐健忘症

<神農本草經>에 人蔘은 “安精神 定魂魄 止驚悸, ………開心 益智”라 하였다. 人蔘은 大補元氣하며 元氣가 충만하면 心氣가 補養되고 心神이 安寧하게 되며 心智가 聰明하게 되어 安神益智의 효능이 있게 된다. 心氣가 부족하면 驚悸恍惚 夜臥不安 健忘 등 증이 생기며, 茯苓 遠志 石菖蒲를 배합하여 益氣補心 安神定志한다.(〈太平

惠民和劑局方> 定志丸). 心腎不足으로 陰血虧少하면 心煩不寐 心悸不安 健忘 등 증이 보이는데 生地黃 麥門冬 酸棗仁 등을 配合하여 滋陰養血 補心安神한다.(<攝生秘剖> 天王補心丹). 心脾不足으로 多夢易醒 心悸健忘 納呆便溏 등이 보이면 白朮 黃芪 酸棗仁 茯神 등을 배합하여 補養心脾한다.(<濟生方> 歸脾湯) 心膽氣虛로 失眠多夢 易驚 膽怯心悸 등이 보이면 龍齒 茯神 石菖蒲를 배합하여 益氣鎮驚 安神定志한다.(<醫學心悟> 安神定志丸). 만약 迷惑善忘하면 石菖蒲 遠志 茯神 茯苓과 함께 가루내어 복용한다.(<千金要方> 令人不忘方)

5. 津虧證, 消渴證, 血虛證

人蔘은 大補元氣하며, 氣足하면 津液도 충족되어 口不渴하게 된다. 그러므로 人蔘은 生津止渴하여 津虧證과 消渴證에 사용한다. 만약 氣分熱盛으로 氣津兩傷하면 身大熱 大煩渴 大汗 脈洪大而無力하게 되는데 石膏 知母 甘草 粳米를 배오하면 辛寒清熱 益氣生津하게 된다.(<傷寒論> 白虎加人蔘湯) 만약 熱病後期에 餘熱未盡 津氣已傷 咽乾口渴 少氣欲嘔 등증에는 竹葉 石膏 半夏 麥門冬을 배오한다.(<傷寒論> 竹葉石膏湯) 만약 여름에 汗出過多로 耗氣傷陰하여 體倦氣短 小便頻數 脈洪無力한 消渴證이라면 麥門冬 天門冬 天花粉 黃芩 知母 甘草 荷葉을 배합하여 益氣生津 清熱解渴한다.(<醫學心悟> 二冬湯) 만약 消渴로 引飲無度하면 人蔘과 瓜蒌根 동량을 가루내어 煉蜜로 丸을 만든다.(<仁齋直指方> 玉壺丸)

人蔘은 “惟其氣壯而不辛 所以能固氣, 惟其味甘而純正 所以能補血”(《本草正》), “補氣生血 助精安神”(《本草匯言》) 血虛證과 氣血雙虧證에 대개 當歸와 同用한다.(《景岳全書》 參歸湯) 心血虛로 驚悸怔忡하거나 혹 盜汗不寐하면 茯神 五味子 酸棗仁 등을 배합하여 養血安神한다.(《校注婦人良方》 養心湯) 氣血不足으로 面色萎黃 頭暈心悸 納呆體倦하면 白朮 當歸 熟地 등을 배합하여 補益氣血한다.(《正體類要》 八珍湯) 氣虛血弱하고 心失所養하여 心動悸 脈結代하면 炙甘草 地黃 桂枝 등을 배합한다.(《傷寒論》 炙甘草湯) 心脾兩虛로 氣血不足하여 食少體倦 面色萎黃 體虛發熱하면 當歸 遠志 酸棗仁 白朮 등을 배합한다. (《校注婦人良方》 歸脾湯) 産後氣血不足으로 乳汁不通하면 黃芪 當歸 白朮 木通 등을 배합한다.(《傳青主女科》 通乳丹) 氣血不足으로 牙宣口瘡하면 白朮 黃芪 熟地 등을 배합한다.(《外科正宗》 蔘苓內托散) 久病에 氣血虧虛하여 耳鳴 耳聾하면 白朮 黃芪 肉桂 當歸 등을 배합한다.(《辨證錄》 發陽通陰湯)

6. 陽萎證 虛損證

人蔘은 大補元氣하고 益腎助陽하여 腎虛陽痿에 사용하며, 單用으로 술에 타서 복용하여도 좋은 효과가 있다. 대개 鹿茸 熟地黃 등을 배합하면 효과가 강해진다. 만약 腎元陰元陽虧虛로 陽萎早泄하면 鹿角 龜甲 枸杞子와 함께 고아서 복용한다. (<蘭臺軌範> 龜鹿二仙膏) 만약 精血虧虛하고 元陽衰弱하여 陽萎遺精 失眠多夢 등이 보이면 熟地黃 山茱萸 巴戟天 遠志 柏子仁 등을 배오하여 培元補腎 養心寧神한다.(《萬

病回春> 延齡固本丹)

人蔘은 大補元氣하여 先天을 養하며, 또 健脾益氣하여 後天을 培하여, 強身延年한다. 小兒의 稟賦不足과 腎元虧虛에는 熟地黃 山藥 杜仲 當歸 등을 배합하여 培補下元한다.(〈景岳全書〉 大補元煎) 小兒가 평소 脾胃가 弱하여 食도 적게하고 말랐다면 白朮 茯苓 使君子 神麩 등을 배합하여 健脾益胃 消食和中한다.(〈幼科發揮〉 萬氏肥兒丸) 체질이 허약하여 나이에 걸맞지 않게 약한 사람은 鹿鞭 狗鞭 淫羊藿 등을 배합한다.(〈烟台中藥廠配方〉 至寶三鞭丸) 중노년에 精力이 점차 衰하고 氣血이 虧耗되고 臟腑가 虛弱하면 製首烏 巴戟天 當歸 등을 배합한다.(〈中國醫學大辭典〉 長生不老丹) 나이들어 몸이 약해지면서 臟腑가 虛損하고 脾胃薄弱하면 山藥 茯苓 芡實 蓮子肉 등을 배합하여 健脾益胃 益氣和中한다.(〈外科正宗〉 八仙糕)

7. 邪實正虛證

人蔘은 正氣를 保護하며 祛邪藥物과 配伍하면 扶正祛邪의 效함이 있다. 만약 氣虛 外感風寒이라면 前胡 桔梗을 배합하여 益氣解表한다.(〈太平惠民和劑局方〉 人蔘敗毒散 蔘蘇飲) 만약 內熱裡結하고 氣血이 허약하면 大黃 芒硝 當歸 등을 배합한다.(〈傷寒六書〉 黃龍湯) 만약 瘡瘍이 潰한 후에 正氣가 허약하여 收斂하지 못하면 黃芪 當歸 등을 배합하여 溫補氣血하고 斂瘡生肌한다.(〈外科正宗〉 保元大成湯) 만약 痘瘡表虛하여 斑爛不能收斂하면 黃芪 當歸 金銀花 連翹 등을 배합한다.(〈張氏醫通〉 人蔘固肌湯) 만약 瘡疾이 계속되어 痞塊가 되었으면 鼈甲 桃仁을 배합한다.(〈傷寒論〉 鼈甲煎丸) 만약 痰熱咳喘痰多하면 半夏 青黛 天門冬 등을 배합한다.(〈內外傷辨惑論〉 人蔘清鎮湯) 만약 水腫喘盛하면 人蔘 葶藶子를 가루내어 丸으로 하고, 桑白皮煎湯으로 下服한다.(〈醫學啓源〉 人蔘葶藶丸)

참고문헌

- 朴華用. 1989. 韓國產 栽培人蔘의 遺傳學的 研究, 忠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1991. 本草學, 서울, 永林社, pp.531-534.
國家中醫藥管理局. 1995. 中國中醫藥年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74.
孟慶英. 1996. 清代人蔘資源保護管理. 中藥材 19(1):50-51.
周鳳梧. 1987. 古今藥方縱橫.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263-274.
雷載權 張廷模. 中華臨床中藥學(下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1585-1597.